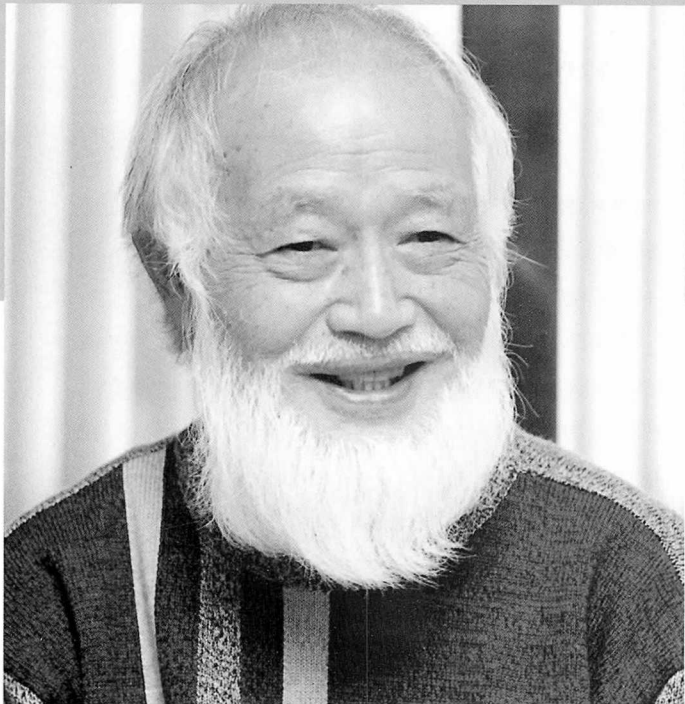


삶의 예지 묻어나는 세계문화 체험기

《박희진 세계기행시집》 펴낸 박희진씨



원로시인 박희진씨(72)가 《박희진 세계기행시집》(시와진실)을 펴냈다. 1955년 《문학예술》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시인의 22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은 불혹의 나이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을 무수히 둘러본 시인의 세계문화 체험이 빚어낸 시 88편을 모은 것이다. 시인은 45세 때인 1975년 처음으로 세계여행길에 올랐다. 불혹의 나이에 외국문명을 접하는 일이 너무 이르지도 않고, 어쩌면 알맞은 나이였다고 시인은 말한다. 그때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계획 4개월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압도적인 감명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기행시의 시작이었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삶의 진실 포착해

흔히 시는 20대의 예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등단 후부터, 아니 오히려 시간의 눈금을 재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보여준 왕성한 창작열은 그런 말을 한순간에 무화시킨다. 고회를 넘긴 나이면 적당히 원로 대접 받으며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한유의 세월을 보낼 법도 한데, 그는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씩 없이 흘러왔다. 60세 이후 지금까지 펴낸 시집이 열권이 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가 이 시집에서 보여주는 세계는 동서양을 넘나들며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삶의 진실과 그 문화를 바라보는 웅숭깊은 통찰력이다.

“여행할 때는 거의 병어리처럼 말을 잃어요. 쉼 새 없이 눈앞에 전개되는 낮선 풍경과 자연의 아름다움, 친밀감을 주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 책은 원로시인 박희진씨가 지난 30여년간 세계 곳곳을 탐방한 문화체험기다. 기행시의 본질이 사물을 꿰뚫어보는 혜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는 동서양을 넘나들며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삶의 진실과 문화적 충격을 웅숭깊은 시선으로 보여준다. 또한 ‘원융무애’와 ‘세계일화’의 사상, 곧 외부에 구애받지 않는 대자유의 사상과,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옷맵시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죠. 더욱이 히말라야의 설산이나 그랜드캐년 같은 경이적 자연 경관을 대했을 때나 인류 역사의 집적물인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라도 만나는 날엔 그 충격 때문에 여지없이 흔들리죠. 그럴 땐 마치 순식간에 뇌수술을 받는 기분이예요.”

그의 프로필은 자유인의 초상을 닮았다. 일흔이 넘도록 혼자 살아온 것이나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은 베란다의 넓은 창으로 북한산이 그대로 들어와 앉은 우이동 자택에서 하루에도 수십번 산과 눈맞추며 잡음 많은 세상과 등을 돌린 채 은자처럼 살고 있다.

그에게 시인이라는 천직만 있었던 건 아니다. 젊은 시절엔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교직에 있던 25년 동안은 생계를 위해 자유로운 방랑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 그에겐 견딜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25년 동안 평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방학 때면 다른 선생님들은 승급을 위해 강습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데 관심조차 없었죠. 감투가 싫었거든요. 그 시절 나의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시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가 이런 바람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의 나이 스물 넘긴 1983년이였다. 그때 미련 없이 교직을 떠난 그는 무작정 인도로 향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행시를 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어서 여행에서 얻은 감흥을 시로 남기지 못한 것도 많았다. 그는 이를 못내 아쉬워한다.

원융무애, 세계일화의 정신 담아내

이 시집은 크게 6부로 나뉜다. 1부 ‘홍록(紅錄)의 꿈’은 1991년 중국 여행에서 얻은 시편들이다. <백두산 가는 길>로 문을 연 중국시편은 “망국한(亡國恨)을 되씹으며 / 와신상당의 고초를 겪었던 / 연변의 우리 동포”들의 애환과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 또는 우리 겨레 혼의 근원을 찾아” 시원을 향해 떠든 기록들이다. 2부와 3부는 1992년과 그 이듬해 카자흐스탄과 미국 서부 여행의 감상과 여흥들이다.

2000년 4월 한달 정도 네팔에 머물면서 쓴 시들은 4부 '네팔 기행 시편들'로 엮었다. 특히 이 시편들은 오랫동안 불교적 세계관에 심취해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만남을 모색해온 시인의 성찰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고희의 나이에도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은 시인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편들이기도 하다. "본래 시인이란 누구보다도 / 자신을 신에 닮게 하려는 자, / 참되게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자, / 순수연관 속에 사물의 진상을 /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기 위해 / 연꽃 속 보석 같은 제3의 눈을 / 갈고 닦으려는 사람이 아니던가(〈스와 얌부나트 스푸파〉)"라는 시에서 그의 시인관을 엿볼 수 있다.

앞의 시편들이 미발표 신작시들이라면 5부와 6부의 시들은 기존에 문예지 등을 통해 발표했던 시들 가운데 기행시만 따로 뽑아 묶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한 방울의 만남〉은 원융무애(圓融無碍), 곧 외부에 구애받지 않고 대자유를 지향하는 그의 세계관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는 "온 우주가 때로는 한 방울 / 영롱한 이슬 속에 / 흔적도 없이 용해되고 마는" 세계일화(世界一華)의 사상, 곧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머리말에서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말한다.

"여행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타자와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 결국 나와 타인, 한국과 세계는 서로 다르면서도 둘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다."

인생 자체가 여행이듯 모든 시는 기행시다

그는 기행시의 본질이 사물을 꿰뚫어보는 혜안에 있다고 말한다.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한갓 즉흥적인 감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여행중에는 단 한편의 시도 쓰지 않는단다.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한두달 정도 꼭 곰삭인 후 비로소 펜을 잡는다. 그래서 여행지 곳곳에서 찍어온 사진들은 그에게 모래알처럼 흩어진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흔히 기행시를 가볍게 혹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여기서 기행시란 한낱 편의적 분류법에 따른 것일 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시는 다 기행시가 될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자체가 지나간 여행이기 때문이죠. 또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외로운 유일회적(唯一回的)인 나그네인 까닭이죠."

열다섯살 때부터 시를 써온 그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를 놓은 적이 없다. 첫 시집 《실내악》을 비롯해 지금까지 그가 세상에 내보낸 시집만도 22권이고, 여기에 시선집 세권과 시화집 등이 있다. 다작의 비결을 묻자 그는 "아무리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도 쉴 새 없이 갈고 닦아야 무리익은 작품이 나온다"며,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귀뜸한다. 이런 정진과 노력이 늘 자신을 깨어 있게 하고,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비결이라고도 덧붙인다.

그는 젊은 시인들이 너무 조속해 초기 시집 한두 편을 끝으로 작가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안타까워한다. 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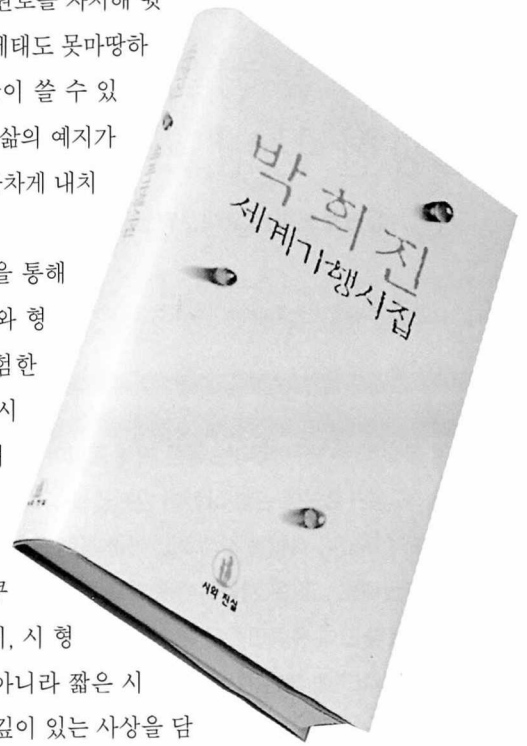
수 있는 시인들이 원로를 자처해 뒷짐 지고 물러나는 세대도 못마땅하다. 나이든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인생의 무게와 삶의 예지가 빛나는 시들을 매몰차게 내치는 듯해서다.

50여년의 시력을 통해 다양한 시의 테마와 형식의 다양성을 실험한 그는 요즘 17음절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17음절시는 일본의 단시 하이쿠에서 빌어온 것인데, 시 형식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짧은 시 속에 선문답 같은 깊이 있는 사상을 담 아낼 수 있어 매력적이죠. 지금까지 5백 수 정도 썼고, 당분간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해외여행을 통해 세계 기행시를 쓰고, 하이쿠를 빌어와 새로운 시의 형식을 실험한다고 해서 그가 한국인으로서 주체성을 망각한 적은 없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의 접이시대에서 얻은 감흥에 우리의 정서를 접목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수염조차 하얗게 바랬지만 여전히 청년 정신을 간직한 그가 앞으로 어떤 시를 세상에 내보낼지 궁금하다.

—박옥순 기자



시와진실/A5신/306면/12,000원

산에 오르며 시심 닦는 '우이동의 은자'

박희진씨가 사는 우이동 집엔 그가 이름 붙인 '호일당' (好日堂)이란 당호가 걸려 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은 그의 바람을 담은 것이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는 산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단다. 하지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탈이다.

그가 북한산 자락에 말년의 동지를 든 건 교직을 그만둔 후 3년이 더 지난 1986년이 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다. 잠시라도 한곳에 머물러 있기를 주저하는 그가 이렇듯 오랜 세월을 한 자리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그건 바로 집 앞에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롭고 답답할 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바로 산행입니다. 주로 북한산을 오르는데, 숲에서 만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가 제겐 삶의 위안이고 시의 원천이 됩니다."

그의 집엔 컴퓨터도 팩스도 없다. 외부와의 유일한 소통수단은 죽히 20여년은 됐음직한 전화기 한대와 우편물뿐이다. 한번은 전화번호를 바꿔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 몇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그후 몇 년이 지나 제자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며 찾아오기도 했더니 그의 은자적 삶을 짐작할 만하다.